

전국 흉년에도 전남 쌀 생산량 증가

통계청 '쌀 생산량 예상' ...전남 72만7000t 4년만에 늘어
벼 재배면적도 15만6000ha로 1.4% 증가...9개 도 중 유일
올해 첫 공익직불제 시행...쌀 값 오름세 속 가격 동향 주목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이 9개 도(道)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4년 만의 첫 증가이다. 농정 당국은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첫해인 2020년 쌀 수급은 균형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은 최근 '2020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363만1000t으로 지난해보다 3.0%(11만3000t)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사상 초유의 긴장과 태풍 등 영향을 받아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청 측은 풀이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72만7000t으로 전체 생산량 5분의 1(20%)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70만9000t), 전북(57만2000t), 경북(50만6000t), 경기(35만9000t), 경남(32만t), 충북(16만4000t), 강원(13만1000t), 인천(5만t), 광주(2만4000t), 세종(2만t), 울산(1만8000t), 대구(1만4000t), 부산(1만1000t), 대전(5000t), 서울(580t), 제주(80t) 등 순이었다.

전남 쌀 생산량은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0.2%(1500t) 증가했다.

제주(-20%), 강원(-13.5%), 충북(-5.7%), 전북(-5.5%), 경북(-4.3%), 경기(-3.9%), 경남(-3.5%), 충남(-0.4%) 등 나머지 지역과 대조적인 결과였다.

전남 쌀 생산량은 2016년 84만6236t(전년비 -2.3%), 2017년 82만7162t(-2.3%), 2018년 76만6022t(-7.4%), 2019년 72만5094t(-5.3%) 등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남지역은 벼 재배면적도 지난해 15만4000ha에서 올해 15만6000ha로 1.4% 증가했다. 역시 9개 도 가운데 유일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6432ha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했다. 10a(1000㎡)당 생산량은 올해 500kg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벼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7-8월)에 긴장과 태풍(바비)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일조시간은 줄어든 반면 강수량이 늘었고 눈이 수해 피해를 본 경우도 상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2020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1만3000t 감소했지만,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한 첫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관계 부처,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쌀 수요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안에 있고, 올해 양곡연도말(10월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t 수준으로 쌀 공급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16년 61.9kg, 2017년 61.8kg, 2018년 61.0kg, 2019년 59.2kg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수급관리기준 상 정부의 별도 시장조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산지 쌀값은 2019년산 재고 소진, 2020년산 수확 지연 등의 원인으로 수확기 초기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지난 5일 산지 쌀값 한포대(80kg)의 가격은 21만9288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

균 18만9964원보다 3만원 가량(14.3%) 비쌌다.

다만 전체 쌀 재배면적의 91%에 해당하는 중단생종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쌀값도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산 쌀 수급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수확기 출하 물량을 적절히 매입하고 쌀값 추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확기 중 35만t을 공공비축하는 동시에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6.5% 많은 3조3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의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피해 벼 농가의 희망 물량도 매입한다.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고려하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떡, 도시락 등 영세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000t을 연말까지 추가 공급한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11~12월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출 돕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이병호·왼쪽)는 전남도·고흥군과 지난 8일 전남도청에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 제공>

전남도·고흥군과 업무협약 신규시장 개척·해외 홍보 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내년 하반기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해외 수출을 돕기로 했다.

aT는 지난 8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고흥군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은 해양성 기후로 사시사철 따뜻하고 전국 최대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곳으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고급 만감류 생산의 최적지로 꼽힌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을 기반으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농업기술 혁신과 청년창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병호 aT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규근 고흥군수가 참석했다. aT는 17개 해외지사의 다양한 수출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한 해외정보와 수요조

사를 통해 스마트 팜에 적합한 신규 유통 품목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전방위 판로 확보를 위해 aT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국내 판로에 힘쓴다. 혁신밸리 전략 품목을 공공급식에 진출시키거나 푸드플랜과 연계해 로컬푸드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신규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 등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농식품 유통 전문가로서 사업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을 돕고, 청년농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국비 589억원(53%)·도비 190억원(17%) 등 1100억원을 들여 고흥군 도덕면 가이리 일원(고흥만 간척지)에 33.4ha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실증단지 등이 들어서며 주민 참여형 임대형 온실, 청년창업 보육 등을 운영한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국비 589억원(53%)·도비 190억원(17%) 등 1100억원을 들여 고흥군 도덕면 가이리 일원(고흥만 간척지)에 33.4ha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실증단지 등이 들어서며 주민 참여형 임대형 온실, 청년창업 보육 등을 운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랭지무, 작황부진에 소매가격 지난해 1.5배

광주 1개 가격 4000원

9월 두차례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탓에 고랭지무 소매가격이 지난해의 1.5배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고랭지무 상품 1개당 평균 소매가격은 3872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된 고랭지무 1개 가격은 4000원이었다. 이는 1년 전(3000원)보다 33.3% 오른 가격이다.

전국 평균 고랭지무 소매가격은 5일 3944원, 6일 3929원, 7일 3913원, 8일 3872원으로 다소 내려가고 있으나 지난해나 평년보다는 1.5~1.6배 높은 수준이다. 1년 전 고랭지무 상품 1개 가격은 2630원, 평년은 2454원이었다.

전날 기준 무 상품 2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만4100원으로 지난해(2만500원)보다 17.6%, 평년(1만7505원)보다 41.3%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전남본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2개 마을 수상



순천 문성마을 주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현지 심사단 방문을 환영하는 모습. 이 마을은 본선 금상 수상마을로 선정됐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순천 문성마을 금상·고흥 쑥섬마을 동상

농협중앙회 주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순천 문성마을이 금상을, 고흥 쑥섬마을이 동상을 받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3회째 열린 이 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문성마을(순천농협)은 깨끗한 마을 경관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금상과 함께 상금 3000만원이 주어졌다.

고흥 쑥섬마을(홍양농협)은 아름다운 마을 경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동상과 함께 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농협중앙회 주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는 농촌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아름답게 가꿔져 나가는 농촌마을을 선발하는 대회이다. 총 24개 마을에 상금 5억여 원을 주며 시상식은 다음 달 5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앞서 열린 1~2회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7개 수상마을을 배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학교급식 국내산 비율 광주·전남 최고

전남 농산물 98.44%·광주 수산물 83.82%

최근 3년 동안 학교급식 농수산물 국내산 비율을 집계한 결과, 전남은 국내산 농산물 사용 최고, 광주는 수산물 비율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학교급식 농수산물 사용 현황' 자료에 담겼다.

최근 3년 동안(2017년 3월1일~2019년 7월31일) 학교급식에 사용된 농산물 가운데 국내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98.44%)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국내

산 비율은 95.88%로, 전남에 이어 제주(98.43%), 충남(97.66%), 대전(96.58%), 전북(96.4%), 대구(96.01%), 울산(95.9%), 광주(95.86%) 등 순이었다.

광주는 수산물 국내산 비율이 83.82%로, 전국 평균(71.26%)을 크게 웃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입산 농수산물을 보니 수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박이나 국내산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다랭이·황태제 등이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뒤흔세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玉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갑자보(18C4년) ◆ 기묘보(1999년) ◆ 계해보(1863년) ◆ 학사공파(1935년) ◆ 정미보(1907년) ◆ 평장사공파(2012년) ◆ 갑오보(1954년) ◆ 의령옥씨 1500년사 ◆ 병진보(1976년)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편찬위원장: 옥삼중, 옥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치남 010-3550-8912